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브리콜

경제의 눈

문화향기

과열 부추기는 '내집 마련' 불안심리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이사>

정부는... 확실한 주택 공급정책, 안정된 분양가,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주시시켜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지난 9월말 이후 시장불안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격상승의 특징을 보면 첫째 강남중심이 아니라 강북이나 수도권 등 이전에 가격상승이 없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세·월세서 매입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거시변수의 흐름만 보자면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 등을 살펴볼 때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하향-안정이라고 전

망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정책변수 역시 세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구조를 잘 갖추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적 규제의 위력은 커지면서 시장 안정을 공고화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해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주택으로 수요 몰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흐름에 두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하나는 수요공급적 측면에서의 불균형 문제이고, 이에 따른 양극화와 불안심리를 제어하기 위한 확실한 공급정책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만 죽이는 부동산 정책 재검토해야

수도권의 집값 폭등에 정부가 또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주에 굵직한 대책을 발표키로 한 것이다.

을 해 내 집을 마련했거나 앞으로 마련할 서민과 지역민만 힘들게 할 뿐이다. 소위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범인 투기 세력은 이 정도의 금리인상이나 규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더 커진 지역간 소득격차

외환위기 이후 영·호남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간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소득 및 인구증가율에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인 반면 광주·전남은 0.6%씩 감소했다. 지난해 대졸 이상 취업자 비율도 광주·전남은 27.94%로 전국 평균 32.39%에 크게 못미쳤다.

의료 칼럼



심상돈

작년 봄이었다. 계속되는 외래진료와 수술 속에서 지쳐가고, 몸은 점점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무엇인가 돌과귀를 찾으러 인터넷을 뒤지다 내 몸에 가장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자전거'를 선택하게 됐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프지만 계속 달리고 싶다. 운동을 해도 되나?"고 묻는다. 물론 대답은 "NO"이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

운동하면서 무리하지 말자

훈련과 호흡법 지도가 이어졌고, 나는 1달 만에 1천500m 기록을 세웠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였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연습에 연습을 하다 보니 몸무게도 줄고 뱃살도 줄어들었다.

다. 뭘 때는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면서 발의 앞쪽으로 굴러가듯 해야 무릎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않는다. 허벅지와 종아리의 각도 변화가 커지면 근육에 피로가 빨리 오고 이로 인해 무릎연골 및 인대 손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고



신국호

박람회하면 '무역박람회' '산업박람회' '전자제품박람회' 같은 것은 물론 심지어 '꽃박람회' '채움박람회' 등 수없이 많은 박람회가 있어 여수 박람회도 그런 흔한 박람회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여수 EXPO, 지역 확 바꾼다

도 및 여수시에서 역점을 두고 개최권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제박람회 참가한 것은 1889년(고종 26년) 파리 만국박람회였는데 그때 출품한 물건은 고작 갓·모시·뿔자리에 지나지 않았다.

육성함으로써 21세기 해양 한국을 여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1조 9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지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회활용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업소 개업 이벤트 보단 서비스 정신 앞세워야

각종 업소들이 개업할 때 도우미를 고용해 전단지나 나눠주거나 화성기를 불어놓고 춤을 추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잡으려는 이벤트를 많이 개최하고 있다.

또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틀어놓아 시끄럽다. 이벤트성 행사 때문에 손님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팝콘' 일식 영화관 먹거리 다양화 아쉬워

영화관의 대표적 메뉴는 팝콘과 콜라다. 아이들과 함께 가기도 거의 어김없이 팝콘과 콜라를 사야한다. 한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라는 극장에서 메뉴는 팝콘과 탄산 음료만 고착이다.

를 본다는 것은 영화관에서 맛보는 또다른 재미다. 그렇다면 콜라와 팝콘 외에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할 수는 없을까. 자국적인 음료수와 과자류가 아닌 순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팝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다양하게 비치되기를 갈망한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리 지급합니다.

無等鼓

BC 206년 10월, 한(漢)나라는 진(秦)을 격파하고 수도 함양(咸陽)을 점령했다. 패공(沛公) 유방(劉邦)은 지역 부로(父老)와 유지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만 처벌을 받았었다. 경찰은 새 조항에 따라 단속을 시작했지만,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約法三章



유방이 새로 공포한 법은 '살인을 한 사람은 죽인다'(殺人者死) '남을 다치게 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傷人反盜抵罪) '나머지 진나라의 법은 모두 없앤다'(餘悉除去秦法)는 내용이었다.

음란행위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되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음산법'은 '몸에서 벌어진 일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도우미 세계의 룰(rule)과도 상충된다. 단속의 승강이 속에서 이 규칙이 깨질지도 궁금하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